불자 세상보기

신승철
시인 · 정신과전문의

인공 임신중절 문제와 철학적 반성

요즘 인공 임신 중절(낙태) 문제로 논란이 많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부 여성의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상황 외에, 낙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유 선택의 낙태가 만연해 있는 풍조다. 법 따로, 현실 따로가 문제다. 논란의 발단이 일부에선 정부의 노령화 사회 대비 낙태를 엄격히 제한해 출산 장려의 의도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낙태 현장을 몸소 겪던 산부인과 의사들의 도덕적 갈등이 큰 동인(動因)으로 작용한 듯싶다. 낙태 제한으로 출산 장려를 유도 한다는 것에는 엄청난 사회적 부작용과 그 비용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전까지 낙태의 윤리적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지 못했다. 성교육이나 피임 방법이 부족했던 사회 환경 탓이 크다.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경제 문제가 맞물려, 피임의 장려가 낙태의 양산을 부추긴 영향도 컸으리라. 남아 선호에 대한 집착으로 타의 반, 자의 반 기혼 여성들은 낙태를 해야만 했던 사정도 있다. 성개방의 급물살을 타고 미혼 여성의 원치 않은 임신이 늘어나, 의사와 임신 여성 양쪽 모두 자유 선택의 낙태가 이제까지 별 부끄럼도 없이 이루어지곤 했다.

다른 나라의 사정은 어떤가. 가톨릭이 국교(國敎)인 남미의 대부분 나라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낙태 관련 문제로 내홍을 앓고 있다. 국제적 통용의 모범 답안은 없어 보인다. 이 문제의 배후에는 종교적 신념, 여성의 신체 주권이나 개인의 자유 의지, 생명에 대한 자각이나 의식의 정도가 큰 사회적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서 나라마다 그 사회 · 문화적 여건에 따라, 낙태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종교적 영향력이 강한 나라일수록, 낙태의 허용 기준이나, 낙태 허용 임신 기간이 짧다는 것이 대체적인 특징이다. 세분하면,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는 그 기간의 임신 여성의 선택권이나 결정권도 존중해 준다. 의사의 양심도 존중해 주는 분위기다.

우리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되나. 그간의 무분별한 낙태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낙태 관련 죄의식이 빈약했던 우리의 생명 의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알다시피 태아도 감각과 의식이 살아 있는 생명체라는 사실은 진즉에 밝혀져 있다. 낙태 여성 대부분이 낙태 경험 뒤, 정신적 외상(外傷)으로 자책과 후회의 감정으로 여러 유형의 정신 질환을 앓는다는 지적이다. 불교적 생명관으로 볼 때도 이러한 추이는 명확하게 부합된다.

낙태 여성들이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의식이 부족한 탓도 큰 문제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추상적인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강조한다고 해도 뚜렷한 변화가 올 것 같진 않다. 선진국의 경우, 법제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임신 여성에게 책임 있는 선택을 하도록 강조했다는 의미가 엿보인다. 낙태 문제를 선악 시비로만 따져서는 현실적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다. 생명에 대한 각성된 진화된 의식은, '임신 중절은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리고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는, 미국의 저명 정신과 의사인 스캇 펙 박사가 지적했듯이 우리 사회가 낙태에 관한 '죄의식'을 함께 떠맡으려는 공동체 의식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하면, 불가피하게 태어날 아이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 양육 보조, 사회적 · 정신적 복지의 문제까지 우리 사회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적지 않다. 단기적 처방으로는 그 해결이 쉽지 않다. 물론 이제부터라도 교과과정에서 다양한 메뉴의 성교육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생명 존중 의식은 이 같은 교육이나 법률의 개선, 정책의 변화로도 상당 제고되리라 본다. 아울러 미국의 경우처럼,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 거부에 대한 자기 결정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여건들이 조성된 후, 임신 여성들에게 책임 있는 선택을 하도록 권고함이 나을 듯 싶다.

OECD 국가 중 자살율 최고, 낙태율 최고인 우리나라다. 생명 경시 경향이 많다는 사회적 지표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젠 우리 사회가 책임감 있게 스스로 이 문제를 묻고, 답해야 될 때다. 물론 그 답은 일반윤리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잘 드러나 있다.

사부대중 칼럼

석길암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공존을 위협하는 망언을 경계한다

어떤 사람은 컵라면 하나에 김밥 한 줄을 먹고서 행복해한다. 어떤 사람은 나이프와 포크를 들고서 스테이크를 썰고도 불만스러워 한다. 어떤 사람은 빨간 옷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노란 옷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색깔이 알록달록 뒤섞인 옷을 좋아한다. 게다가 그것마저 시시때때로 뒤바뀐다. 선택 가능하다면, 사람들은 같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에는 그 선택의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것은 종교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꽤나 종교적이라고들 한다. 나도 종교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종교적이라는 말에는 쉽게 수긍하지 못한다. 종교란 것은 인간의 삶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는 주는 것이라고 늘 배워왔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흔히 발견하기 때문이다. 우리 바깥의 혹은 우리 안의 세상에서 자주 목격되는 종교적 폭력, 심하게는 종교전쟁 같은 것들을 보면 더욱 그렇다.

종교적 폭력은 종교 본연의 목적인 삶의 평화와 행복 추구에 심각한 장애물이기 때문에 전혀 종교인답지 못한 행위일 뿐이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버젓이 정의라는 이름을 내걸고 자행된다. 그런 폭력을 자행하는 이들은 틀림없이 '내가 정의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이라크를 공격했던 부시가 그러했고, 세계무역센터를 공격했던 테러리스트들 역시 그러했을 것이다. 정의와 정의가 부딪친 현장은, 그러나 인간에게는, 참담함과 불행만을 남길 뿐이다.

최근 우리 사회 여기저기서 일부 목사들이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발언들을 서슴지 않는다. '이것만이' 정의라며 서슴없이 다른 종교인들의 평화로운(?) 가슴살을 난도질한다. 그 폭언의 칼질에는 상대방이란 존재하지 않는, 존재하지 말아야 할 어떤 증오의 대상일 뿐이기 때문에 섬뜩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나는 근본주의 혹은 원리주의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원리주의가 딱히 나쁘게 나타났던 것만은 아니지만, 그 원리주의가 일으키는 폐해를 역사적 사례에서 적지않게 발견할 수 있다. 서구 역사에서의 종교전쟁들은 실은 다 그런 원리주의의 산물이다. 이게 근본이니까, 근본에 위배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순식간에 수십 수백만이 몰살되는 전쟁으로 연결된다.

정답은 오류를 용납하지 않는다. 정답 이외의 다른 답은 몽땅 틀린 답일 수밖에 없다. 원리주의는 내가 믿는 이 정답만을 강요한다. 일부 몰지각한 목사님들은 자신이 정답만을 말한다는 심각한 오류에 빠져있다. 최근 연이어 터져 나오는 몇몇 목사님들의 '정의의 폭언'은 그 오류에 근거한 것이다.

그 목사님들한테 묻고 싶다. 당신은 일 년 내내 항상 흰 옷 하나만을 입고, 하루 세 끼 가리지 않고 스테이크만 드십니까? 아마도 그렇지는 않겠지요. 가끔은 떡볶이에 오뎅국물도 드시고, 가끔은 형형색색의 잠옷도 근사하게 입으시겠지요. 당신이 때마다 같은 음식을 드시지 못하고, 날마다 같은 색깔을 옷을 고집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종교는 서양의 중세시대에서와 같이 더 이상 유일한 옵션이 아닙니다.

종교 안에서조차 다양한 옵션이 가능한 게 오늘날의 한국사회입니다. 성직자만이 득세했던 중세시대로 당신의 성도들을 이끌려는 게 아니라면 제발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하지 않으실런지요?

오늘날 한국사회에는 스님 목사님 신부님 등 다양한 종교인들이 함께 하는 많은 모임과 자리들이 있다. 그런 자리에서 그들이 처음 하는 일은 서로 다른 것을 비방하는 일이 아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들의 모임에서 첫 번째로 행해지는 일이다.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비로소 대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다름을 인정해야만 비로소 더불어 살아가는 첫 번째 요건이 충당되기 때문이다.

일부 몰지각한 목사님들의 다르기 때문에 없애버려야 한다는 폭언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지속가능한 공존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들도 그렇지 못한 이들도 반드시 주시하고 경계해야만 할 심각한 위협이다.

사 설

법정 스님은 다시 오신다

큰 스승 법정스님이 끝내 먼 길을 가셨다. 아쉽고 허전하다. 법문 원고를 작성해 와선 또박또박하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연민 가득하고 맑은 눈으로 해주시던 말씀을 다시는 들을 수 없다. 슬프다. 각박한 세상살이에 스님의 가르침은 큰 위안이었고 싱그러운 에너지였다.

법정 스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어찌나 단출한지 숙연하다. 분향소엔 영정과 촛불 한 자루, 향로만이 놓여 있다. 위패엔 '비구 법정'이라고 쓰여 있었다. 대종사도 아니고, 당호도 걸치지 않았다. 그냥 출가 수행자인 비구일 뿐이다. 생전에 보았던 그 모습을 다시 보는 듯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정진의 힘으로 죽을 때
어지럽지 않도록 하라

길상사에서 송광사 다비장으로 가는 길에는 꽃도 상여도 없었다. 나무로 짠 평상 위에 평소 입었던 승복을 입고 가사를 덮은 채 반듯하게 누워 계셨다. 그리고 한 줌의 재가 되어 지수화풍으로 스며들어 이승의 자취를 말끔히 지웠다. 공(空)이다. 텅 비어서 공이고, 꽉 차서 공이다.

법정 스님은 40여 년 전인 71년 유서를 남겼다. 그해 여성동아 3월호에 실은 '미리 쓰는 유서'라는 글인데, 지금 읽어보니 스님을 다시 뵙는 것 같다. "장례식이나 제사 같은 것은 아예 소용없는 일. 요즘은 중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한술 더 떠 거창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토록 번거롭고 부질없는 검은 의식이 만약 내 이름으로 행해진다면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몹시 화나게 할 것이다.…옮기기 편리하고 이웃에게 방해되지 않을 곳이라면 아무데서나 다비해도 무방하다. 사리 같은 걸 남겨 이웃을 귀찮게 하는 일은 나는 절대로 절대로 하고 싶지 않다."

법정 스님 다비준비위원회가 빈소를 차리지 않고,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관을 짜지도 않은 이유이다. 무소유가 무엇인지, 맑고 향기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글과 말로써 대중들에게 당부했는데, 그 가르침을 마지막 가는 길에 저리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절로 두 손이 모아지고 허리가 숙여진다.

이생에 인연지어 78년을 부렸던 법정 스님의 육신은 가셨지만, 법정 스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법정 스님은 "내 생에도 다시 한반도에 태어나고 싶다"고 했다. 모국어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 나라를 버릴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다시 출가 수행자가 되어 금생에 못 다한 일들을 하고 싶다"고 했다. 다시 오시겠다고 했으니 법정 스님 같은 큰 스승의 가르침을 다시 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나 희망을 품는다고 해서 그 희망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법정 스님이 떠난 빈자리를 우리 스스로가 희망의 씨앗이 되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메워지지 않는다. 무소유를 실천하며 맑고 향기롭게 살지 않는다면 더 많은 법정 스님이 오신들 세상살이는 따뜻해지지 않는다.

법정 스님은 입적 하루 전 상좌들에게 "어디서든지 내 제자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정진의 힘으로 죽을 때 어지럽지 않도록 하라"는 가르침을 남겼다. 어찌 상좌들만이 아로새길 가르침이겠는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강원지사 : (033)744-361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화제의 신간
누·구·나·쉽·게·이·해·하·고·배·울·수·있·는!!
핵·심·사·주
1천여 년만에 탄생하는 새로운 정법 학설 !!
四柱學의 초보자나 학생, 전문가, 걸흔 중개사는 꼭 배워야하는 四柱學의 秘傳으로 누구나 이 책 한권으로 한번만 읽어도 쉽게 專門家가 될 수 있도록 核心만을 간추렸다.
대대로 수제자들에게만 전해져온 사주풀이의 비법을 공개한 이 책은 기존 대부분의 사주풀이 방법을 완전 뒤집은 진정한 사주풀이의 혁명적 秘書가 될 것이다. 특히 여자사주와 궁합의 원리는 한국 古代 道人들로부터 秘傳으로 傳受되어온 秘法으로 天氣를 누설한 四柱學의 革命을 가져 올 力作이다.
이젠 천기를 누설 한다 !!
기존의 사주학 학설로는 오직 개인의 숙명의 귀,천 만을 알 수 있고 미래 운명의 예측은 50여%에 미달하고 전혀 반대되는 운명을 예측하는 오류가 있다. 본 "핵심사주"는 1천여 년 만에 사주학의 올바른 정법 법칙을 완성한 역작이다!!
왜 핵심사주인가.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최초로 공개되는 궁합의 비법!!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鄭炳玉 博士 지음 / 신국판 / 336쪽 / 정가 25,000원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이제 당신도 점술가가 될 수 있다!
역술무속인들도 숨겨놓고 본다.
천기가 누설된다고 하여 나라에서 금기시켰던 자미두수! 앉아서도 십리를 알 수 있는 고산의 자미두수가 당신의 운세를 알려 주는 것은 물론 당신을 귀신도 곡하는 신통한 점술가로 만들어 준다.
◆ 한국별점 자미두수가 당신의 운세를 …
이 학문은 고대 중국의 진희라는 사람이 기도 중 천기를 받아 창안한 성리학이다.
특히 천지조화를 터득하고 인간의 부귀빈천과 길흉화복을 예지 타의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 정확성이 뛰어나며 귀신도 울고간다하여 금기된 적도 있다. 인연있는 후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연구 지금의 자미두수로 오늘에 이르렀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 여러분께 좋은 운명의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
高山 엄창용 지음/4×6배판/양장본/45,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신국판/청산 김성진 지음/35,000원
新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송월 스님 지음/양장본/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신제품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엘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윤택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